

사업계획서 요약본

Quota Investment

Measured by Reason, Driven by Formula

1. 사업 개요

Quota Investment는

금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시장 속 나의 몫(Quota)'을 계산·배분·기록하는

데이터 기반 투자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체이다.

본 회사가 정의하는 **Quota**란,

시장 전체 기준이 아닌,

개인 자본이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기준으로

투자 진입 가능한 몫을 계산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본 사업은

종목 추천, 수익 보장, 투자 대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본 배분·리스크 관리·매매 규칙을 수치화·데이터화하여

투자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철학

Measured by Reason, Driven by Formula

(이성으로 측정하고, 수식으로 실행)

2. 시장 문제 인식

현재 개인 투자 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1. 투자 판단이 감정·경험에 의존
2. 자본 규모 대비 리스크 관리 기준 부재
3. 단기·장기·현금흐름 자산의 혼재
4. 투자 결과의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부족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는
단기 수익과 장기 손실을 반복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3. Quota Investment의 해결 방식

(1) Quota 산출

- 개인 자본 규모
- 감당 가능한 손실 한도
- 시장 변동성

을 기준으로

1회 진입 시 사용 가능한 자본 몫(Quota)을 계산

(2) Quota 배분 (다계좌 구조)

- **1번 계좌:** 적극적 트레이딩 (수익 창출)
- **2번 계좌:** 장기 적립식 투자 (1번 계좌 수익 재투자)
- **3번 계좌:** 안정·현금흐름 자산 (배당·공모주)

→ 공격-성장-안정 자산의 순환 구조

(3) Quota 기록

- 모든 투자 판단을 **Y/N, 0/1**, 단순 수치 데이터로 기록
 - 1행 = 1회 진입 시도 기준
-

4. 핵심 운용 규칙 (추세매매)

- **성공 확률:** 약 30% (보수적 가정)
- **실패 확률:** 약 70%
- **실패 시 손실 제한:** 거래당 최대 -8%

매도 기준

- 추세 진행 이후

- 고점 대비 약 8% 하락 시
- 추세 종료 구간으로 판단하여 매도

운용 목표

낮은 승률을 전제로 하되

손실은 엄격히 제한하고

성공한 소수의 거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여

장기 기대값(EV)을 양(+)으로 유지

5. 데이터 수집 및 AI 활용

- 모든 거래를 데이터로 축적
- 진입 조건, 손익비, 시장 국면, 결과(R값) 기록
- 데이터는 다음에 활용
 - 운용 규칙 검증·개선
 - Quota 점수 산출
 - AI 기반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 개발

AI의 목적은 수익 예측이 아닌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보조이다.

6. 수익화 사업 모델

단기

- 프리미엄 투자 리포트
- Quota Framework 교육 콘텐츠
- 데이터 기반 분석 리포트

중·장기

- Quota 점수·지표 라이선스
-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 구독
- B2B 리서치·데이터 제공

7. 예상 수익 구조 (보수적)

주요 가정

- 거래당 진입 자본: 전체 자본의 약 10%
- 연간 거래 수: 약 50회
- 손실 한도: 거래당 -8%

목표

- **연간 기대 수익률: 약 20~40% 수준**
(레버리지·과도한 차입 없이, 보수적 기준)

8. 운영 및 리스크 관리

- 대표 중심 소규모 운영
- 고정비 최소화 구조
- 손실 상한·운용 중단 기준 명확
- 과도한 레버리지 및 차입 배제

9. 사업의 차별성

구분 기존 투자 **Quota Investment**

기준 종목·수익률 자본 몫(Quota)

판단 감정·경험 수식·규칙

기록 단편적 전면 데이터화

확장성 제한적 AI·IP 가능

10. 결론

Quota Investment는

개인의 투자 경험을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 데이터·프레임워크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고위험 투기 구조가 아닌,

손실 통제가 명확한 주식 기반 운용 구조를 전제로 한다.